

우즈 또 최우수 선수

PGA 선정...3년 연속 영예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3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PGA투어 사무국은 선수들 투표를 결정하는 '올해의 선수'에 우즈가 선정됐다고 12일(한국시간) 밝혔다.

우즈는 2005년부터 3년 내리 '올해의 선수'를 독식했고 프로 데뷔 이후 11시즌 동안 2차례를 뺀 9시즌에서 최고 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선수 투표가 아닌 포인트 제도를 통해 선정하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올해의 선수'도 물론 우즈에게 돌아갔다.

우즈는 올해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7차례 우승을 거두며 상급랭킹 1위, 다승 1위, 최저타수 1위 등을 석권했다.

PGA 투어는 '올해의 선수'에게 '잭 니클러스 트로피'를 주고 상급 1위에게는 '아놀드 파머 트로피', 그리고 최저타수 1위에게 '바이런 넬슨 트로피'를 준다.

올해 상급랭킹 4위에 오른 스티브 스트리커(미국)는 '재기상'을 받았고 신인상은 브랜트 스니데커(미국) 몫이었다.

한편 시니어 투어인 썬belt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의 영예는 제이 하스(미국)가 차지했고 2부투어인 네이션스 투어 '올해의 선수'는 닉 플래너이건(미국)이 뽑혔다.

태권도 스타 문대성 IOC선수위원 후보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호쾌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던 '태권 스타' 문대성(31·동아대 교수·사진)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에 올랐다. 문대성은 12일(한국시간) IOC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선수위원 후보에 남자 육상 110m 허들 세계기록 보유자인 '황색 탄환' 류시양(중국)과 '수영 천재' 그랜트 헤켓(호주), 남자 해머던지기 무로후시 고지(일본) 등과 함께 31명 후보에 포함됐다.

문대성은 아테네올림픽 남자 태권도 8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은퇴해 지도자의 길을 걷다 지난 6월 현역 복귀를 선언하고 베이징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선수 분과위원 19명 중 15명은 8년 임기의 IOC위원(총 115명) 자격까지 얻는다. 문대성이 도전하는 선출직 위원은 12명이며 IOC 위원장이 대륙별, 성별, 종목별로 인배해 지명하는 나머지 7명의 분과위원 중 3명이 추가로 IOC위원으로 뽑힌다.

페더러 테니스 10대 뉴스 톱

남자프로테니스(ATP)가 1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2007년 남자프로테니스에서 각종 진기록을 쏟아낸 주인공은 다음과 같다.

로저 페더러의 2년 연속 4대 메이저대회 결승 진출이 10대 뉴스 맨 앞을 장식했다. 사상 처음 있는 기록으로 그는 2년 연속 '인순천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에게 지는 바람에 클레이코트에서 열리는 프랑스오픈 우승컵을 안지 못했을 뿐 월별 5연패, US오픈 4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위상을 굳혔다.

이밖에 205cm의 큰 키를 앞세운 강사버 존 아이스너 열풍을 비롯해 ▲다비드 날반디안, 세계랭킹 1, 2위 선수 두 차례 격파 ▲나달, 프랑스오픈 3연패 ▲노박 조코비치, 세계 랭킹 1~3위 연속 격파 ▲페르난도 곤살레스, 호주오픈 돌풍 ▲이보 카를로비치, 1천318개의 서브 에이스행진 ▲샬 퀴리 10연속 서브 에이스 ▲브라이언 핼제, 11차례 우승으로 최다 복식 타이틀 달성 ▲로터, 타이브레이크 18연승 등이다.



서재응 가세로 탄력받은 KIA

별들의 군단 우승 후보로

이젠 KIA를 골킥팀이 아닌 '한국의 뉴욕 양키스'로 불러야 할 듯 싶다. 서재응, 최희섭, 이종범, 장성호, 한기주, 김진우 등 그 이름만으로도 뉴스의 중심에 서는 스타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별째부터 내년 시즌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서재응이 합류한 마운드의 안정감이 가장 눈에 띈다.

서재응-신임용병-윤석민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최강 전력이다.

무단 잡적했던 '토종 에이스' 김진우도 기나긴 방황을 마치고 모교인 진흥고에서 내년 시즌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쏟아내고 있다.

뿔뿔로 뜯는다. 올 시즌 2승 3패 25세이브를 올린 '특급 마무리' 한기주가 버티고 있다.

여기에 넘쳐나는 젊은 유망주도 큰 힘이다. 양현중, 문현정, 오준형, 고우석, 손영민 등 젊은 어깨들이 무럭무럭 성장중이다.

메이저리그 출신 최희섭이 버티고 있는 타선도 위력적이다.

최희섭은 올 시즌 데뷔 직후 부상으로 신음하기도 했지만 52경기에서 타율 0.337, 7홈런을 터트렸

다. KIA는 특히 최희섭이 부상에서 회복한 7월 12일 이후 49경기에서 23승 26패를 기록할 정도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전까진 28승 1무 48패로 바닥을 쳤었다. 최희섭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최희섭과 더불어 '타격왕' 이현근과 '스니퍼' 장성호, 영입을 추진중인 신임 용병타자 등 중심타선의 무게감은 타 팀을 압도한다.

또 '최고참' 이종범이 여전히 견제함을 과시하고 있고, 빠른발 이용규도 내년 시즌 3할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KIA구단은 이같은 잠빛 전망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조호 KIA 단장은 "내년 시즌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목표는 우승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동계훈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승후보로 꼽히는 건 부담스럽다. 자칫 코칭스태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까봐 조심스럽다"면서

"그렇지만 팬들의 기대가 높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남은 훈련기간동안 선수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내년시즌 좋은 성적으로 팬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L 출신 투·타 '핵심' 김진우 몸만들기 한창 신·구 조화 최강 진용



환상의 리듬체조 연기

12일 태국 코라트에서 열린 제24회 동남아경기대회(SEA Games, 시계임) 여자 리듬체조 종목에 출전한 다니카 카라파탄(필리핀)이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 여자핸드볼 행운의 8강행

세계선수권...조 4위로 '턱걸이'

한국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제18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에서 열린 대회 본선 2조 4차전에서 최임정(6골)을 비롯한 주포들이 골고루 득점에 성공하며 헝가리를 31-26, 5점 차로 완파했다.

한국은 본선리그 결과 2승3패에 그쳤지만 스페인 조 골키퍼 폴란드에 29-30로 덜미를 잡힌 덕에 4위를 차지, 행운의 8강 진출을 이뤄냈다.

경기 초반 헝가리와 광활한 접전을 이어가던 한국

은 전반 24분 9-9 동점에서 이상은(4골)의 골과 최임정이 2골을 연거푸 폭발시켜 12-9, 3점 차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명복희(5골), 오성목(5골)의 연속 골로 점수 차를 벌린 한국은 후반 13분 문필희(2골)의 9m 짜리 중거리포가 왼쪽 골 그물을 가르면서 23-13, 10점 차로 크게 앞서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같은 조 3경기 가운데 처음 경기를 치른 한국은 마지막 스페인-폴란드전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전반 내내 크게 뒤지던 폴란드가 후반 들어 전세를 뒤집고 스페인을 물리치자 환호했다.

임영철 감독은 "이미 8강행을 확정지은 헝가리보다 우리 선수들의 정신력이 앞서 이길 수 있었다"며

"준준결승 상대가 본선 1조 1위인 노르웨이이지만 익숙한 상대여서 잘 된 일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표팀은 곧바로 파리로 이동해 14일 노르웨이와 4강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Table with membership information for 'Special Member' (특별리회원권). Columns include name, amount, and phone number (062)351-0095.

KIA 출신 그레이싱어 이승엽과 함께 뛰다

몸값 2년간 5억엔...요미우리 입단

지난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뛰다 일본으로 건너간 우완 세스 그레이싱어(32)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했다고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가 12일 보도했다.

계약 조건은 그동안 알려진 대로 2년간 5억엔이며 등번호는 29번을 달게 됐다.

기요타케 히데토시 구단 대표는 "(그레이싱어 영입)을 올 시즌 보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싱어는 구단을 통해 "요미우리에 입단하게 돼 가슴이 벅차다"며 "일본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레이싱어는 올 시즌 야쿠르트 스왈로스 에이스로 활약하며 16승8패, 평균자책점 2.84로 센트럴리그 최다승 투수가 됐다.

야쿠르트가 올 시즌 재계약을 위해 2년 6억엔을 배정할 것을 비롯해 소프트뱅크나 한신 등이 2년 7억엔을 내걸고 그레이싱어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작 본인은 "도쿄에서 뛰고 싶다"며 요미우리에 입성했다.

두산 리오스 日 러브콜 쇄도

야쿠르트 이어 오릭스도 관심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이어 오릭스 버팔로스도 두산 베이스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35) 영입 경쟁에 뛰어들어 전방이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니치는 12일 오릭스가 리오스에게 1년 1억엔 가량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금액은 리오스의 올해 추정 연봉 50만 달러(엔화 5천600만엔)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오릭스 구단 관계자는 "두산은 리오스를 붙잡기 위해 다년 계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일본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단은 지금까지 김동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리오스 영입 추진 보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쿠르트, 오릭스, 라쿠텐 토크 이글스 등 일본야구 약체 팀들은 지난해 KIA에서 야쿠르트로 옮긴 세스 그레이싱어(32)가 올 시즌 16승8패로 센트럴리그 최다승 투수가 되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수 영입에 예년보다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는 올해 62승77패로 퍼시픽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일구회 박찬호 특별상

KIA 이현근 의지상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마이네리코 계약한 박찬호(사진)가 프로야구 출신 야구인 모임 일구회(회장 김양경)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올 시즌 갑상선 질환을 견뎌내고 전 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며 '타격왕'에 오른 이현근(KIA)은 의지선수상을 수상했다.

일구회는 12일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2007 일구상 시상식을 열고 해외파 시대를 개척한 박찬호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

박찬호는 한국야구 산중인으로 원로 아마추어 야구인 모임 백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양경 회장으로 부터 상을 받았고 과거와 현재 최고 투수들의 만남이 연출돼 더욱 뜻깊었다.

이 다음은 수상자 명단. ▲일구대상=한영관 리틀야구연맹회장 ▲최우수선수상=양준혁(삼성) ▲신인선수상=임태훈(두산) ▲의지선수상=이현근(KIA) ▲재기선수상=정민철(한화) ▲모범선수상=강민호(롯데) ▲코치상=김광욱 현대 코치 ▲심판상=김병주 심판위원 ▲프런트상=SK 와이번스 ▲특별상=박찬호 ▲아마추어 지도자상=유영준 장충도 감독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